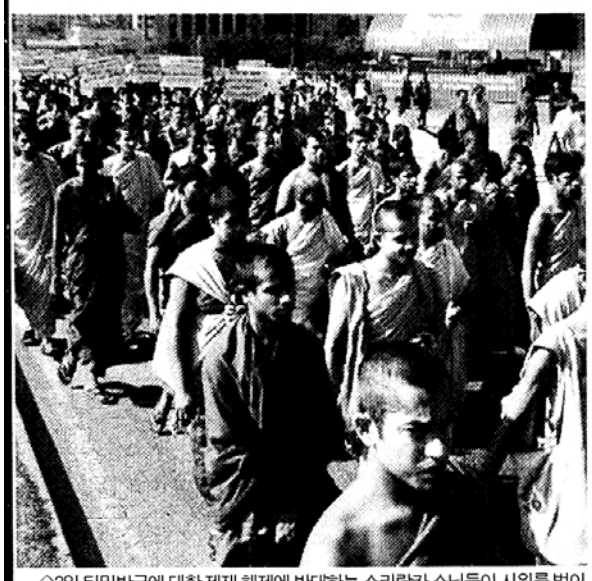


◇3일 타밀반군에 대한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스리랑카 스님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도 타밀반군 제재 해제 반대 시위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1998년 1월 반군이 불교 사원에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한 직후부터 제재해온 타밀 반군 게릴라 단체인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에 취해 온 제재를 해제했다고 틸락 마라포네 국방장관이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 십년 간의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노르웨이가 중재한 평화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타밀 반군과의 평화협상은 계속하겠지만, 제재 해제에는 반대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스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도들도 3일 제재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자비원' 호스피스 활동

미국 땅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저소득층 한인들을 돌보기 위해 한인사회 최초로 무료 호스피스(임종간호) 서비스에 나선 한국 사찰이 있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지원장 원공스님)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 자비원은 지난 달 7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호스피스 케어 네트워크'와 호스피스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불교계에서 활발하게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국 한인을 상대로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것은 자비원이 처음이다. 자비원이 '호스피스 케어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운영하는 '자비원 호스피스'는, 내년 1월부터 죽음을 앞둔 한인들에게 임종간호와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사찰 최초…美서 임종 간호

내년 1월부터 부처님품서 편히 최후맞게

소득 낮은 환자 무료로…자원 봉사자 모집

자비원은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는 한인의 경우 의료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소득도 낮고 의료보험증도 없는 사람은 무료로 돌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비원은 전문 호스피스와 자원봉사자 호스피스로 나뉘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 호스피스는 은퇴한 의사, 간호사,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보조와 간호 활동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말벗이 되어 주는 등 정신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맡게 된다. 자원봉사 호스피스는 일정 기간 교육을 마친 후 누구나 할 수 있다.

현재 자비원은 전문 호스피스와 일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종교를 떠나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마음선원 스님과 자비원 직원들이 먼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자비원 이경희 원장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통해 진정한 자비심과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현재 삶에 대한 소중한 체험을 얻을 수 있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자비원은 지난 99년 사원연합회 산하 단체로 설립돼 그동안 한인을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신청 대행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시민권 신청 등 이민관련 상담, 초기 이민자를 위한 영어교육 등을 무료로 운영해 왔다.

지난 7월 한마음선원이 인수한 뒤에 호스피스 운영 계획 외에도 영어 출장 통역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자비원은 후원회(회장 박종성) 이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1-718-886-4082.

"美 9·11 보복전쟁 또다른 폭력

진정한 평화는 이해·존중·신뢰 통해서만"

달라이 라마 성명 발표

"미국에 대한 테러는 쇼킹한 일이었다. 그러나 보복전쟁은 또다른 폭력을 낳아 결국 최선의 방안은 될 수 없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3일 '9·11 사태'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보복 전쟁은 또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비판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비폭력'을 호소했다.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달라이 라마는 "오늘날 이견해소의 유일한 수단은 대화와 타협, 인본적 이해와 겸손으로 진정한 평화는 상호이해와 존중, 신뢰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인류의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비폭력주의가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인들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공감대를 장기적인 테러 방비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분노와 파괴적인 감정에 기인한 드라마틱하고 폭력적인 수단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테러의 기저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무력행위로는 테러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무력의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도리어 악화시키며 그 여파로 파멸과 고통을 종종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캄보디아 정글서 순금불상 27구 발굴

북부 캄보디아의 정글지대에서 순금 불상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8월 27일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도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1백㎞ 떨어진 캄퐁톰에서 포피치 불교사원 재건축공사를 벌이던 인부들이 1m 깊이의 땅 속에서 10㎝ 크기의 순금 불상 27구를 포함해 총 31구의 불상을 발견했다. 불상들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상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 당국은 즉각 사원 인근지역에 경찰병력을 파견해 도굴꾼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불교협회에 이를 전달해 보관토록했다.

아프간軍 프랑스 불상 발굴팀 추방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지방에서 불상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던 프랑스 고고학팀이 현지 군사당국에 의해 명확한 이유없이 추방됐다고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세계문화재 네트워크인 '뮤지엄 시큐리티 네트워크(Museum Security Network)'가 4일 밝혔다.

지난해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던 친탈레반 정부는 1500년 된 바미안 석불 2기를 파괴한 바 있다. 이후 기메박물관이 주축이 된 프랑스 고고학팀이 올해 초 파괴된 석불 2기 가까운 곳에 제3의 불상이 매몰돼 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유네스코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들어 파괴된 바미안 석불을 복원할 계획이 없다고 최근 밝힌 바 있으며, 이에 프랑스 당국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이 3번째 불상을 발굴하기로 하고 제마리알리 타르지 교수가 이끄는 조사팀을 파견했었다.

http://www.sunjaevatar.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행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이게 웃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폐쇄을 원합니까? 울고 웃는영금은 누가만듭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의 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지않는 신념은 지우고 원하는 신념을 창조하여 변혁된 삶을 만드십시요.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바타 코스는 당신을 뜻대로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선재아봐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vatarsunjae@yahoo.co.kr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4-1 북아현맨션 2동 502호

이거룡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글 싣는 순서
① 삶과 종교의 일치
② 아자수 잎에 새긴 불법, 패엽경(貝葉經)
③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tanya) 전통
④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후 수세기 동안 교법이 문자로 기록되는 일이 없었다. 모두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거룩한 진리를 문자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있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마힌다(Mahinda)비구가 스리랑카에 전한 팔리 삼장(三藏) 또한 문자로 기록된 서물(書物)이 아니었다. 스리랑카에서 삼장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그 후 이백여 년이 지난 기원전 1세기 중엽이며, 알루비하라 사원에서 패엽경(貝葉經)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 본토를 포함하여 교법이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일이다.

교법의 필사(筆寫)는 '정법이 오래 머무름'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스리랑카에는 6년간의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암송을 통한 구전 전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교법이 문자로 기록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마탈레 지역의 알루비하라 사원이 사경의 장소로 선택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이 지역은 타밀족의 침입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다. 뿐만 아니라, 패엽경 제작에 필요한 팜(palm)나무가 풍부했으며, 또한 스님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천연동굴이 많은 것도 좋은 조건이 되었다.

알루비하라 사원에는 패엽경 제작을 위한 13개의 동굴이 있었다. 천연동굴이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마를 조성하는 등의 일이 요구되었다. 지금은 13개 동굴 중에서 2개만 완전한 모습으로 전해진다.

처음에 3벌의 삼장이 문자로 기록되었다. 한 벌은 금판에 새겼으며, 이것은 현재 알루비하라 사원의 바위 속에 보관되어있다. 다른 두 벌은 패엽경으로 제작되었다.

경문을 팜 나무 잎(tala-patta)에 사경하여 보관하는 전통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잎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솥에 찌고 마름질하는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철필로 경문을 쓴 다음 새겨진 홈에 잉크를 붓고 닦아야 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 때문이다.

나뭇잎에 한 자 한 자 경문을 긁어 새기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편의를 따르는 것에 절 안팎에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편하고 쉬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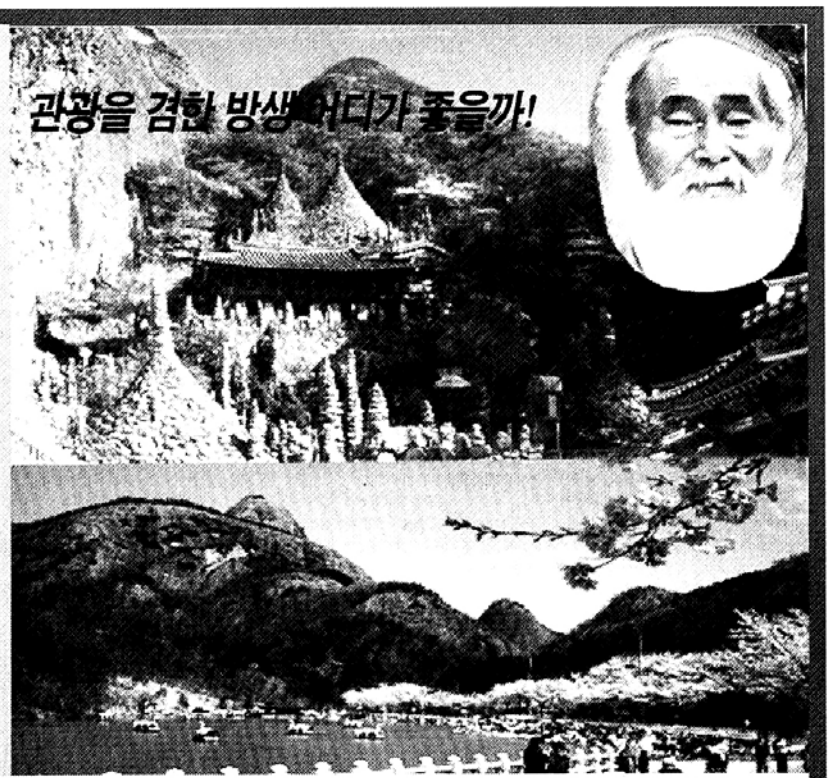
◇팜 나무 잎에 철필로 사경(寫經) 중인 난다라타나 스님.

풍부한 팜나무·천연동굴 등 좋은 여건

사경과정 힘들고 복잡해 점차 사라져

▩이거룡/동국대 연구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 433-2900,0303
432-0652,0072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